

# e-KIET 산업경제정보

## 우리나라 지역경쟁력의 평가와 시사점

### [요 약]

- 본고에서는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과 지역 간 경쟁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여,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  - 이를 위해 23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쟁력의 원천을 기업부문, 산업부문, 입지부문, 정책부문으로 나누고, 지역경쟁력의 수준을 상위, 중위, 하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쟁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
- 설문조사 결과, 지역경쟁력 요인 중 지역경쟁력의 상·중·하위 지역 간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요인과 차이를 갖는 요인 존재
  - 기업부문 : ‘노사관계의 안정성’을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, ‘R&D투자 및 연구인력 정도’는 지역 간 커다란 격차 존재
  - 산업부문 : ‘지역 내 대표산업의 존재’를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, ‘지식기반산업의 존재’는 지역 간 커다란 격차 존재
  - 입지부문 : ‘쾌적한 자연환경’을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, ‘인프라 접근성 및 우수성’은 지역 간 커다란 격차 존재
  - 정책부문 : ‘지자체 장의 역량’을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, 지역 간 평가 격차가 큰 요인은 부재
- 향후에는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 필요
  - 지역경쟁력 상·중·하위 지역 간 공통요인과 차별화요인을 파악하여, 미흡한 요인에 대한 보완 필요
  - 각 지역 내에서 저평가를 받은 지역경쟁력 요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함께, 상위지역과의 격차완화 정책 병행추진 필요
  - 지역경쟁력을 반영한 시·군·구별 장기 지역발전전략 수립 필요

## □ 지역경쟁력의 정의와 구성요소

- Storper(1997)<sup>1)</sup>는 지역경쟁력(regional competitiveness)을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유지, 향상시키면서 성공적인 기업을 유치,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”으로 정의함.
  - 학자에 따라 지역경쟁력을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, 여기서는 Storper의 정의에 입각하여 해석함.
- 많은 연구에 의하면,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 내지는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(<표 1> 참조).
- Gardiner 등(2004)<sup>2)</sup>은 지역경쟁력의 원천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 및 최종 성과 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지역경쟁력의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냄 (<그림 1> 참조).
  -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지역의 환경, 의사결정 과정, 사회구조, 지역문화 등이 지역경쟁력의 최하부 원천을 구성하고, 지역경제구조 등 네 가지 요인이 그 다음 단계에 위치함.

<표 1>

지역경쟁력의 개념

|    | 정 의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 학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론적 기반       | 주요 결정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광의 | 주민의 소득수준을 유지,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| Storper, Reinert, Martin, Camagni | 절대적 경쟁우위론    | 입지요인, 사회자산, 인프라, 공간정책, 노동력, 투자, 지식 등이 절대적 경쟁우위 창출 |
| 협의 | 지역경쟁력 = 지역생산성              | Porter, Aula, Fratesi             | 경쟁적 다이아몬드 모델 | 기업환경, 클러스터, 지역전략 등이 지역혁신역량 창출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 : 산업연구원 정리 작성.

1) Storper, M., *The Regional World :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*, Guildford Press, 1997.

2) Gardiner, B., R. Martin and P. Tyler, “ Competitiveness,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cross the European Regions ”, *Regional Studies*, Vol. 38, 9, Dec. 2004.

<그림 1>

Gardner

지역의 노동생산성 및 고용에 영향을 주고, 이  
노동생산성(GDP)이 변화되며, 최종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 
향상됨.

- 이상의 이론에 입각하여 경쟁력에 관한 정성적인 설문을 실시한 예로는 Porter와 Bowes를 들 수 있다.
  - Porter(2001)<sup>3)</sup>는 정성적 지역경쟁력 요인을 20개로 구성하고, 사전적 으로 지역발전이 우수한 5개 지역을 조사·비교하였으며, Bowes (2003)<sup>4)</sup>는 41개 요인 구성하여 탄광지역이었던 South Yorkshire 지 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.
  -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Porter와 같이 여러 우수한 지역을 설문하여 상호 비교할 수도 있지만, Bowes와 같이 특정 낙후지역만을 대상으로 어떤 요

1. Porter, M. E., *Clusters of Innovation and Regional Foundations of U.S. Competitiveness*, Council on Competitiveness, Oct. 2001.  
2. Bowes, N., "The Competitiveness of Former Coalfields : Manufacturing Managers' Perceptions of Competitiveness", *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*, May 2003.

인 때문에 지역경쟁력이 취약한가를 파악하여,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음.

#### □ 정량적 지역경쟁력 평가 후, 정성적 설문조사 추진

○ 본고에서는 Porter와 Bowes 등 기존 연구에 입각하여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40개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음.

-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과 지역 간 경쟁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,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.
- 이를 위해 지역경쟁력의 원천을 크게 기업부문, 산업부문, 입지부문, 정책부문으로 나누고, 이 각각의 구성요소를 10개씩 선정함.

○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232개 기초지자체를 광역도시형, 인구 20만명 이상의 거점도시형, 인구 20만 미만의 중소도시형, 농산어촌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.

- 그 다음, 생산성을 반영한 지표와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지표에 의거하여, 지역경쟁력을 정량적으로 측정(<표 2> 참조)하여 서열화하였음.

○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4개 유형별로 지역경쟁력 상위지역, 중위지역, 하위지역 등으로 나누고, 상·중·하위 지역별로 각각 2개씩 구분하여 총 24개 지역을 선정하였음.<sup>5)</sup>

5) (1) 광역도시형 : 상위지역 - 유성구, 광주 서구, 중위지역 - 부평구, 동대문구, 하위지역 - 대구 중구, 부산 서구, (2) 거점도시형 : 상위지역 - 화성시, 천안시, 중위지역 - 군포시, 양산시, 하위지역 - 여주시, 마산시, (3) 중소도시형 : 상위지역 - 안성시, 청원군, 중위지역 - 제천시, 달성군, 하위지역 - 삼척시, 남원시, (4) 농산어촌형 : 상위지역 - 양평군, 함안군, 중위지역 - 청도군, 의령군, 하위지역 - 임실군, 장흥군

&lt;표 2&gt; 지역경쟁력 평가 지표 및 가중치

|                | 세부 지표              | 가중치 | 세부 가중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주민 생활<br>여건 지표 | 인구증가율 순위           | 1/4 | 1/4    |
|                | 종사자증가율 순위          | 1/4 | 1/4    |
| 생산성<br>관련 지표   |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    | 1/4 | 1/8    |
|                |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순위 |     | 1/8    |
|                | 1인당 서비스업 순이익 순위    | 1/4 | 1/8    |
|                | 1인당 서비스업 순이익 증감 순위 |     | 1/8    |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○ 회수된 설문조사표는 총 769부였으며, 설문조사 대상자는 기업 종사자 50%와 공공기관 종사자 50%로 구성됨.

- 설문조사 대상지역을 지역경쟁력 수준에 따라 상위·중위·하위로 나누어, 지역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요인과 지역별 격차가 큰 요인을 추출하였음.
- 각 문항을 ‘매우 낮음’, ‘낮음’, ‘보통’, ‘높음’, ‘매우 높음’ 등으로 구분하고, 각각에 대해 1~5점을 부여한 다음, 각각에 20을 곱하여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였음.

#### □ 지역경쟁력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 존재

○ 4대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, 지역경쟁력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지역경쟁력 요인 중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요인과,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평가요인이 도출됨.

#### <기업부문>

○ 기업부문에서는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 ‘노사관계의 안정성’, ‘기업

대표의 기업가정신’, ‘종업원 간 인화(신뢰) 정도’ 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(<표 3> 참조).

-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상위지역뿐 아니라, 중·하위권 지역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아,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.

○ 기업부문에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격차가 10%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 ‘첨단기업의 입지 정도’와 ‘R&D투자 및 연구인력 정도’였음.

- 그 중 ‘R&D투자 및 연구인력 정도’는 광역도시형의 경우 ‘높음’과 ‘매우 높음’을 합한 비율이 38.6%나 된 반면, 농산어촌형에서는 그 비율이 7.1%에 불과해 지역유형별로도 격차가 매우 컸음.
- 그 외에, ‘제품다양성 정도’와 ‘신제품 개발 및 성과’는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격차가 약 7%포인트 이상이었음.
- 이러한 요인들은 상위지역 기준으로 60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, 하

<표 3> 기업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

단위 : 점수

|                       | 상위지역 | 중위지역 | 하위지역 | 격차 정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기업대표의 기업가정신           | 69.8 | 69.1 | 64.8 | ✓     |
| 첨단기업의 입지 정도           | 58.8 | 52.4 | 47.7 | ✓ ✓ ✓ |
| 제품다양성 정도              | 59.9 | 57.0 | 52.3 | ✓ ✓   |
| 장기적인 기업전략 보유 정도       | 62.9 | 60.9 | 59.1 |       |
| R&D투자 및 연구인력(양, 질) 정도 | 58.1 | 55.5 | 48.0 | ✓ ✓ ✓ |
| 신제품 개발 및 성과(제품혁신)     | 59.1 | 58.0 | 50.5 | ✓ ✓   |
| 원가절감 노력과 성과(공정혁신)     | 65.0 | 62.4 | 59.1 | ✓     |
| 마케팅 능력                | 61.2 | 60.8 | 58.6 |       |
| 종업원 간 인화(신뢰) 정도       | 69.8 | 69.3 | 66.8 |       |
| 노사관계의 안정성             | 70.0 | 71.2 | 68.5 |       |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주 : 1) ✓✓✓는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10%포인트 이상 격차인 경우, ✓✓는 7~10%포인트 격차, ✓는 5~7%포인트 격차를 의미.

2) ■는 상위지역 기준의 상위 3대 요인.

위지역뿐만 아니라 상위지역에서도 향후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.

#### <산업부문>

- 산업부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 ‘지역 내 대표산업의 존재’, ‘산업 집적지의 존재’, ‘산업 내 선도기업의 존재’ 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(<표 4> 참조).
- 산업부문도 각 요인별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평가결과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졌는데, 10개 요인 중 상·하위지역 간 격차가 10%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 ‘지식기반산업의 존재’였음.
  - 특히 ‘지식기반산업의 존재’는 광역도시형의 경우 ‘높음’과 ‘매우 높음’을 합한 비율이 24.4%나 된 반면, 농산어촌형에서는 4.9%에 불과해 지역유형별로도 격차가 매우 컸음.
  - 그 외에, 상·하위 지역 간 격차가 7%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 ‘지역

<표 4> 산업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

단위 : 점수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위지역 | 중위지역 | 하위지역 | 격차 정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지역 내 대표 산업의 존재          | 60.0 | 57.6 | 58.1 |       |
| 산업 내 선도 기업의 존재          | 58.3 | 54.8 | 53.7 |       |
| 산업집적지(클러스터)의 존재         | 58.7 | 57.3 | 53.6 | √     |
| 산업 내 협력 네트워크의 존재        | 57.7 | 57.0 | 52.2 | √     |
| 다양한 산업의 존재              | 56.8 | 53.8 | 48.1 | √ √   |
| 산업 내 전후방 연관기업의 수        | 56.0 | 53.2 | 49.9 | √     |
| 지식기반산업의 존재              | 56.9 | 50.5 | 46.0 | √ √ √ |
| 산업 내 외국기업의 입지, 수출지향성    | 54.0 | 48.2 | 46.1 | √ √   |
| 주변지역의 풍부한 시장수요          | 54.4 | 54.5 | 49.8 |       |
| 컨설팅, 광고 등 서비스기업의 충분한 존재 | 50.5 | 49.0 | 46.2 |       |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

내 다양한 산업의 존재 와 ‘ 산업 내 외국기업의 입지 및 수출지향성 ’이  
있음.

#### <입지부문>

- 입지부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 ‘ 대도시와의 근접성 ’, ‘ 쾌적한 자연환경 ’, ‘ 지역에 대한 외부평판 ’ 등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(<표 5> 참조).
-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‘ 대도시와의 근접성 ’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아, 상위권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.
- 입지부문은 각 요인별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평가결과 차이가 비교적 작은 편이었는데, 10개 요인 중 상·하위지역 간 격차가 10%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 ‘ 대도시와의 근접성 과 ‘ 인프라 접근성 및 우수성 ’이었음.
- 그 외에도 ‘ 고급노동력의 우수한 질 및 조달용이성 ’은 상·하위 지역 간 7%포인트 이상 격차가 발생하였음.

<표 5> 입지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

단위 : 점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위지역 | 중위지역 | 하위지역 | 격차 정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대도시와의 근접성                 | 73.6 | 74.5 | 56.4 | ✓ ✓ ✓ |
| 특수한 자원부존                  | 51.6 | 50.7 | 50.6 |       |
| 항공, 도로, IT 인프라의 접근성 및 우수성 | 63.9 | 64.3 | 52.5 | ✓ ✓ ✓ |
| 고급 노동력의 우수한 질 및 조달 용이성    | 58.7 | 58.6 | 51.6 | ✓ ✓   |
| 저렴한 생산비용 : 용지구입, 임금 등     | 59.3 | 58.9 | 57.2 |       |
| 저렴한 생활비 등 정주여건의 우수성       | 59.5 | 60.0 | 60.1 |       |
| 지역에 대한 외부의 평판             | 65.0 | 61.8 | 60.5 |       |
| 우수한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           | 55.1 | 57.0 | 54.8 |       |
| 주민 간 신뢰 및 유대관계            | 63.8 | 63.8 | 63.0 |       |
| 쾌적한 자연환경                  | 73.1 | 71.9 | 74.0 |       |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

&lt;표 6&gt;

정책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

단위 : 점수

|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위지역 | 중위지역 | 하위지역 | 격차 정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지자체의 독자적 산업발전 전략 존재    | 59.8 | 59.4 | 59.3 |       |
| 지자체 장의 역량 및 동기부여       | 64.0 | 63.8 | 64.3 |       |
| 지자체의 인프라시설(SOC)에 대한 투자 | 60.5 | 61.4 | 60.0 |       |
| 국책사업의 유치 및 추진 여부       | 57.8 | 57.9 | 60.2 |       |
| 산업단지 조성 및 활용           | 62.9 | 59.9 | 60.4 |       |
| 산학연의 장비 및 시설 지원        | 55.7 | 56.4 | 55.0 |       |
| 산학연의 기술 및 교육훈련 지원      | 56.9 | 55.9 | 54.7 |       |
| 공공기관의 행정 및 서비스 지원      | 63.8 | 64.8 | 65.4 |       |
|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본조달 용이성     | 59.9 | 60.7 | 59.3 |       |
| 기업에 대한 조세, 보조금 지원      | 57.7 | 57.3 | 59.2 |       |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## &lt;정책부문&gt;

- 정책부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 ‘지자체 장의 역량 및 동기부여’, ‘공공기관의 행정 및 서비스지원’, ‘산업단지 조성 및 활용’ 등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(<표 6> 참조).
- 정책부문에 대한 평가는 10개 요인 중 상·하위지역 간 격차가 7%포인트 이상 나는 요인이 한 개도 없었음.
  - 이는 현재의 지역정책이 기초지자체의 지역경쟁력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.

## □ 현재는 내생적 요인, 미래는 외생적 요인 중시

-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, 결국 현재의 지역경쟁력 격차는 외부적 여건으로 주어지는 입지나 정책적 차이보다는, 그 지역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

지는 기업이나 산업부문의 경쟁력 차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(<표 7> 참조).

○ 그러나 앞으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이 무엇인지에 관해 순위를 조사한 결과, 대체로 정책부문과 산업부문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(<표 8> 참조).

- 이는 미래에는 입지처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문이나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부문보다는, 외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역 관련 정책 및 산업부문의 경쟁력 요소 강화 지원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.

<표 7> 현재의 지역경쟁력 부문별 평균점수 비교

단위 : 점수, %포인트

|     | 상위지역 | 중위지역 | 하위지역 | 격차 정도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기 업 | 63.5 | 61.7 | 57.6 | 5.9   |
| 산 업 | 56.3 | 53.6 | 50.4 | 5.9   |
| 입 지 | 62.4 | 62.2 | 58.1 | 4.3   |
| 정 책 | 59.9 | 59.8 | 59.8 | 0.1   |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<표 8> 미래의 지역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문

단위 : %, 우선순위 가중종합

|     | 상위지역  | 중위지역  | 하위지역 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기 업 | 22.9  | 23.3  | 22.7  |
| 산 업 | 26.0  | 26.2  | 27.4  |
| 입 지 | 23.6  | 24.0  | 23.8  |
| 정 책 | 27.5  | 26.4  | 26.0  |
| 계   | 100.0 | 100.0 | 100.0 |

자료 : 산업연구원 작성.

주 : 중요순서별로 순위를 정한 것을 1위에 4점, 2위에 3점, 3위에 2점, 4위에 1점을 부여한 다음 각 점수를 합하여 부문별 비중을 구함.

## □ 지역경쟁력의 공통요인 개선 노력과 함께, 차별화 요인도 고려하는 지역정책 필요

- 지역경쟁력의 상위, 중위, 하위지역 간에는 기존의 Porter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공통요인과 차별화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공통요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에서 고평가하는 요인으로, 중위, 하위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인 반면,
- 차별화요인은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격차가 큰 요인으로, 향후 중위 및 하위지역이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.
- 따라서 공통요인의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,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열악한 차별화요인도 동시에 파악하여 보완해 주어야 할 것임.
- 향후에는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·군·구 차원의 정책추진이 필요함.
-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지역 내에서 저평가를 받은 요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함께, 상위지역과의 격차가 큰 요인을 중심으로 한 격차 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- 특히 각 지자체별로 정성적인 측면의 지역경쟁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, 무엇이 지역경쟁력 약화요인인지를 파악하여 보완함과 동시에, 그 지역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을 확인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.
- 지금까지 16개 시·도 내지는 5+2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고려되었던 지역정책들이 향후에는 기초지자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.

- 강한 역량을 가진 기초지자체 없이는 시·도나 광역경제권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, 시·군·구 단위의 지역경쟁력을 반영한 장기 지역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.
- 여기에는 지역 내에 입지하는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, 지역의 입지여건 개선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·제도적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.

김 정 홍  
(연구위원·지역발전연구센터)  
kimjh@kiet.re.kr  
(02-3299-3039)

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[www.kiet.re.kr](http://www.kiet.re.kr)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  
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